윤남진 REVIEW

문학은 허상이 아닌, 삶의 가르침


문학의 숲을 거닐다 | 장영희 지음 | 샘터사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친다. 문학은 삶의 용기를, 사랑을, 인간다운 삶을 가르친다.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치열한 삶을, 그들의 투쟁을,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나는 배우고 가르쳤다. 문학의 힘이 단지 허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본문 318쪽)

〈문학의 숲을 거닐다〉의 저자 장영희는 2001년 유방암, 2004년 척수암, 2008년 간암, 그리고 2009년 5월에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쓰러졌다고 해서 '문학의 힘은 허상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명제의 진실함은 강화됐다. 왜냐면 그의 죽음은 암과의 투쟁 속에서 이뤄졌을 것이지 결코 암에 굴복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같이 확신하는 이유는 이 책을 위암 선고를 받고 위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후에 읽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무한한 용기를 얻었으며, 그 용기로 다시 한 번 열정을 불태울 꿈을 막 실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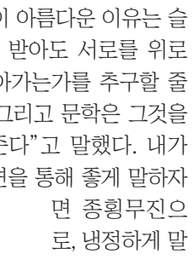
나는 2008년 11월 위암 진단을 받았다. 위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는 의사의 설명에 나는 담담했다. 그리고 수술 하루 전까지 18강으로 구성된 인터넷 강의 '제1기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을 입원실 로비의 컴퓨터에 500원 동전을 넣어가며 모두 마쳤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병실을 나가면 바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 계획을 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1주일도 되기 전 의사는 퇴원해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가 아무리 밥통 역할 외에는 그다지 큰일을 하지 않는 장기라고 말했어도, 위없는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남짓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나는 수술 전에 품었던 꿈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 설날, 영리기업 운영에 대한 48시간의 경영자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초보적인 책들도 보았으며, 영리조직에 단 한 순간도 몸담아보지 않은 내가 대차대조표니 손익계산서니 하는 것들의 원리를 초보자 국문 배우듯 익혔다. 이제 한 50억짜리 신 사업계획서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할 것이다.

나의 이 모든 도전과 열정의 바탕은 돌아가신 나의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불을 붙인 것은 이 한 권의 책이었다. 나는 퇴원 후, 비좁은 전세방에서 투병하기에 맞춤한 '라꾸라꾸 침대'를 하나 사놓고 그 위에서 이 책에 소개된 영미문학의 고전들을 밤새 읽었다. 비록 저자가 소개한 70여 편의 책은 절반도 읽지 못했지만, 이들 문학 고전들은 종교, 사상 혹은 사회과학 서적에 경도됐던 나에게 정서적 풍요와 균형감각을 갖게 해줬다.

저자는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슬퍼도, 또는 상처 받아도 서로를 위로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추구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학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지면을 통해 좋게 말하자면 종횡무진으로, 냉정하게 말하자면 번다한 종류의 책들을 소개해 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지면을 넘겨주고 싶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냉정하게 효율과 효과를 따지고 이윤을 따져야 하는 것이 사업가가 해야 할 기본적 업일 것이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모험을 감행해야 할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지면은 너무 무겁고 귀중하다. 그 대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갈 터전을 더 많이 만들고, 그것이 비록 기능적이고 도구적일지라도, 무임승차권으로 천안이나 춘천에 가는 것 말고 더 슬기롭고 보람되게 노년을 보낼 재주를 가르쳐 주는 그런 장을 개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다.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의 삶도 모두 장한 것이다. 그처럼 장한 사람의 삶을 노래할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지면이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 〈끝〉

꿈을 실현케 해준 단 한권의 책
위암 수술 후, 꿈과 용기얻어
문학 통해 정서적 풍요와 균형 갖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화엄사상이 21세기 경영의 빛이 된다

저자 김형진, 〈화엄 경영전략〉 펴내
대기업 차장 선재의 新 구도기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도요타는 60년 동안 최고의 명성을 날리며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도요타는 현재 품질 안정상 문제를 비롯해 판매부진과 소송사태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끝없는 불황과 위기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기업의 경영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경영방침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걸까. 〈화엄 경영전략〉은 21세기 기업들을 위해 경영이론을 〈화엄경〉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저자 김형진은 화엄사상이 활기차고 진취적이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현대 경영에 맞는 경영철학이라고 주장한다. 책은 디즈니, 포드, GM, 크라이슬러, 혼다, 코카콜라, 그리고 구글을 비롯한 수많은 거대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화엄 철학의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평가했다.

지금 세계는 1920년대 대공황이전부터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마치 윤회처럼 되풀이되는 경제위기는 세계 경제의 숙명인 것처럼 보인다. 저자는 자꾸만 되풀이 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그 해법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산업혁명이후 거의 300년 동안 활발하게 확대 발전돼 온 서구의 기존 경영이론은 2008년의 금융위기이후 벽에 부딪혔고,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규모로 거대한 혼란과 무질서를 낳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접근법에 주목해야 하며, 그것은 전체적인 접근법과 사사무애를 강조하는 화엄사상이라 강조한다.

현재 경영학계에서도 단기적 혹은 대증적 방식으로 일관하는 지금의 해법으로는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에, 경제위기에 대한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가상의 교수를 설정해 이들의 특징에 맞춰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바라보는 현대 경영학 이론을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 김형진은 1990년대 미국 오하이오 주의 글로벌 기업의 전략기획실에서 유럽시장과 아시아시장 분석업무를 맡아 일했으며, 1998년 구국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전문관으로 대미 협상과 무역 분쟁을 맡아 소주 분쟁, 자동차 분쟁, 한미투자협정 등의 일을 처리했다.

화엄 경영전략 | 김형진 지음 | 메이문화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3	아침을 여는 365일 행복편지	법상	조계종출판사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6	노자 도덕경, 그 선의 향기	감산	정우서적
7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우룡	효림
8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9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10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얀연꽃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차안과 피안을 잇는 희망의 무지개

불교의 숨은 뜻 찾기…
'사찰의 문과 다리'



산사를 방문할 때 우리는 대웅전을 먼저 찾고, 불상 앞에서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대웅전에 들어서기 전에 무심히 지나친 사찰의 다리와 문은 이미 우리에게 불교의 깊은 진리와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사찰의 문과 다리〉는 문과 다리의 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분별과 경계를 허물고 소통과 화합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쉽게 풀어내고 있다. 책은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문화의 가치를 되짚어보기 위해 출간한 '불교문화총서'의 네 번째 이야기다.

저자 권중서는 사찰의 다리를 '차안과 피안을 잇는 희망의 무지개'로 보고 있다. 불교에서 '다리'는 부처님과 중생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중생은 부처님에게 깨달음을 구하고 부처님은 중생에게 깨달음을 전하는 연결고리이자 통로가 다리인 것이다.

고성 건봉사의 능파교는 세상의 파도를 뛰어넘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능파는 '파도를 뛰어넘다' '능히 세상의 파도를 건너게 한다'는 뜻이다. 건봉사에서는 능파교를 건너야 대웅전 구역으로 들어설 수 있다.

경주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는 범부의 세계인 사바에서 피안의 세계인 불국의 세계로 진입하는 계단 형태의 다리다. 불교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33개의 계단은 각 계단마다 중생세계 하나에 해당하는 의미를 담아 33종류의 중생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33종류의 중생세계를 지나 깨달음을 얻어야 불국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다리가 이처럼 '차안과 피안을 잇는 희망의 무지개'라면 이 책에서 문은 '너와 나, 진과 속의 경계를 허무는 소통'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불교에서 문은 구분과 경계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이어주는 포용을 보여 준다. 사찰이란 곧 열린 공간이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경계와 구분에서 나오는 차별을 소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보림사 일주문은 한국 선종의 첫 문으로 조계종이 시작됐던 문이다. 일주문 안쪽의 편액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은 보림사가 보조 체징 선사로부터 구산선문을 표방하는 선찰임을 나타내고 있다. 들어가는 앞면에는 '가지산 보림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가지산(迦智山)'은 범어로 음역하면 일체의 도리에 대해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잘 결정하고 판별해 번뇌를 끊는다는 뜻이다. 일주문에 붙어 있는 현판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춘천 청평사의 사천왕문은 회전문이라고 불린다. 사천왕이 인간세계를 항상 돌며 살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회전문은 다른 사찰의 천왕문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마루를 깐 독특한 양식을 보인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대들보와 마루대공뿐인 간단한 조립이며 처마에는 부연도 달지 않았다. 윗부분에는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워 만든 홍살을 배열해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히 하도록 했다. 청평사 회전문은 사천왕이 지금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있지 않은지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를 던지고 있다.



사찰의 문과 다리 | 권중서 지음 | 대한불교진흥원 | 2만원 박기범 기자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



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